

LG, 부타디엔 1만7000톤 증설!

신기술 적용 생산량 15% 확대 ... 에너지 사용량도 25% 절감

LG석유화학은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적용한 부타디엔(Butadiene) 플랜트 증설을 완료했다고 7월31일 발표했다.

부타디엔 공장에 적용된 신기술은 부타디엔 제조원료에 포함된 불순물을 사전에 처리하는 공정을 도입해 기존 부타디엔 공장 시설을 개조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15%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25%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석유화학은 ABS와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타디엔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석유화학 기초제품 가운데 가격이 가장 높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톤당 750달러를 넘어서는 고수익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적용한 부타디엔 공장 증설로 70억원의 소규모 투자로 생산능력을 현재 11만8000톤에서 13만5000톤으로 확대해 매년 50억원 이상의 추가 경상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04>